



봉덕리 마을 전경.



물은 여전히 맑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32 가지산 보림사

장흥댐 건설로 인해 먼 소재지가 있던 곳은 물에 잠겼다. 이미 수장되어 버린 옛 마을 들을 떠올려 보지만, 푸른 물만 출렁거리고 있어서 마을 있던 자리를 짐작하기도 어렵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난다. 선종종찰이라는 표지석을 지나 보림사로 향한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건물만 남은 찻집에는 사람 냄새가 없고, 찻집 주차장에는 풀이 우거져 있다. 여관이나 음식점들도 텅 비어 있다. 더구나 많은 건물들이 뜯기고 있다.

“주차장 자리는 눈이었어. 눈 뒤에 열 세 가구가 있었어. 주차장 만들 때 다 뜯겼지.”

아직 현관을 달지 않은 일주문을 지나 한참 들어가자, 절 앞 주차장이 나온다. 주차장 한쪽은 절담에 닿아있고, 다른 한 쪽은 봉덕 마을이다. 예전에는 20 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와보니 네댓 가구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여기가 네 집, 저기가 열세 집. 전체 다 해서 열일곱 가구 되나.”

봉덕리는 꽤 큰 마을이다. 그 중 사하촌이라 불릴만한 곳이

봉덕1구인데, 절과 붙어 있는 곳은 예전부터 있었던 마을이고, 일주문 아래의 상가는 새로 들어선 건물이다. 그런데 두 곳이다 사라지고 있다.

“군청에서 감정 평가한 사람이 와서 경내를 깨끗하게 정비한다고 주민 동의 받아서, 눈은 보살 안 해주고, 주택은 보살 끝났어요. 단채로 안 나가면 버렸을 것인데, 노인들이 다 나간다고 해가지고.”

문득임(62, 봉덕1구)씨의 말이다. 그렇다면 일주문 밖에 있는 상가들은 왜 뜯기는 거냐고 물으니, “거기는 수자원 공사 차원에서 한 것이고”라고 말한다.

옛 마을은 사찰 정비 사업으로 뜯기고, 새로 들어섰던 상가들은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이주를 권하고 있다. 이제 얼마 후면 보림사 아래쪽에는 사람 사는 집이 한 채도 남지 않게 생겼다.

“이름도 모르게 속기는 있었어요. 스님 마누라들은 없었어요. 여기는 대처승이 없었어요. 시간 않으면 일도 해주고 그리고 사십이다.”

문씨가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김연심(40)씨가 어렸을 때의 추억을 말한다.

“전에는 절 안에 연못이 있었어요. 맑고 절 안에 큰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려서는 절 주지스님한테 세배도 가고, 그러면 주지스님이 세배돈도 주고, 어려서 놀러가고 그러면 재지내고 나면 공양주가 불러 음식도 주고 그랬제. 스님들이 불러서 음식도 주고.”

성과 속이 한 마을을 이루어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마을의 존립에는 무심한 듯, 봉덕계곡의 물은 여전히 맑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신라 말, 구산선문의 종찰로 크게 사세를 떨친 보림사이지만, 처음부터 선종사찰은 아니었다.

759년 원표대덕이 인도 보림사와 중국 보림사를 거쳐 이곳에 이르러, 참선을 하고 있는데, 선녀가 나타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아홉 마리의 용이 있어 살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에 원표대덕이 부적을 써서 다 쫓아내었는데, 유독 백룡만이 끝까지 버티었다. 이에 더욱 주문을 외웠더니, 마침내 백룡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한다. 그래서 보림사 인근에는 용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용이 괴를 흘리며 도망갔다는 괴재, 용의 형상이라는



보조 국사 창성탑에서 바라본 보림사.

용두산. 그리고 청룡리, 용문소 등이 그것이다. 그 후 용이 살던 연못을 매워 절을 짓고 가지산사라 하였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나 보조 국사 제정이 현안왕의 뜻을 받들어 이곳에 구산선문 종문인 가지산문의 문을 열었는데, 보조 국사는 한국 조계종 종조인 도의 선사의 법맥을 이은 분이다.

국보 제44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림사 3층 석탑은 동탑과 서탑을 비롯하여 석등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천년 이상 된 월조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은 새로 지은 것이다. 이전에는 더 작은 규모로 비로전이 있었는데, 대적광전을 새로 지어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건물은 옆으로 옮겨 명부전을 조성하였다.

몇 년 사이에 이처럼 중흥불사가 활발한 절도 드물 것이다. 주지 현광 스님의 원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문 종찰의 위상을 세우려 너무 노력을 한 때 문일까. 노스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다. 속히 쾌차하여 저 령재명인 선승의 기풍을 보여 주셨으면 하고 바라본다.

장흥=이대훈(수필가·본지 객원기자)

정통 서예가로 최근 부작 서예전 열어

부작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서예가 치인 이봉준



부작(符作) 혹은 부적(符籍)은 불가, 도가, 무속 등에서 어떤 불가사의한 영적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

런 부작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가 있다. 치인 이봉준(痴人 李奉俊, 59·사 진선생이다. 강압 서예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이어 김생 서예 대전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통 서예가로 이름 높

은 그가 최근 부작 서예전을 열어 화제가 되었다.

각종 부작 중 기복부 12종을 엄선하여 정성껏 사봉 하였다 작품들. 이미 눈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가 받아온 그의 작품이다. 전시되어 있는 작품에서는 대가의 자유로운 필법이 돋보인다.

그는 만화도다. 서른 즈음에 글씨에 빠져 지금까지 정진해 왔다. 그는 글씨 쓰는 것에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서법 연구에

도 충실하였다. 다양한 서체를 연구해온 그는, 특히 신라 고비와 갑골문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노력으로 <위비의 서법 예술>과 <서법대관>이라는 저서도 펴낸 바 있다.

“관요에서 구워 낸 자기가 아닌 솜씨 부리지 않는 분청사기 같은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냥 부뚜막에 덩그러니 걸린 별가마 같은 글씨……”

그런 마음이 잘 익어서일까, 작품 한 점 한 점이 질박하고 품격 있는데다 자

유모음마저 느껴진다. 단순한 부작이 아니라, 예술혼이 담긴 빼어난 예술 작품이다.

그는 작품에 입할 때 한 가지 절차를 밟는다. 먼저 몸을 정결히 하고, 자사에서 축시까지 백팔 배를 한 후 글씨를 쓴다. 그가 방그레 웃으며 자신이 모시는 미륵부처라며 자연성 하나를 보여준다. 정말 마에불처럼 자연스레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그의 지성을 안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는 당분간 대중을 위해 액자 값 정도의 소액만 받고 부작 작품을 나누어 줄 생각이다. 모든 이의 가정이 불심으로 평온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 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침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 상품

422 로채Q(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트Q(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소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 (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지하철 8호선 송파역(번영로) 환승역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화훼단지2동202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